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 역명부기 변경 건의안

(대표발의 정숙남 의원)

의안 번호	142
----------	-----

발의년월일 : 2021. 11. 12.

발 의 자 : 정숙남, 박재우, 최선호
이장호, 문신우, 이용식,
김효진, 이상정, 김태우,
박일배, 곽종포 의원(11명)

1. 주문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소재지가 양산임을 공고히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의 역명부기를 (통도사)에서 (양산 통도사)로 변경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울산역의 명칭이 부기명 (통도사)와 함께 울산역(통도사)로 되어있어 통도사의 소재지가 울산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통도사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혼란을 막고자 함.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총림 통도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임과 동시에 양산이 함께 가꾸고 지켜온 소중한 양산의 명소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이에,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의 역명부기를 (통도사)에서 (양산 통도사)로 변경하여 통도사의 소재지가 양산임을 공고히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함.

3. 수신처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지사

4. 건의문 : 별첨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 역명부기 변경 건의문

‘울산역(통도사)’의 명칭은 2003년 울산역 개통이 확정된 이후, 양산시민단체와 양산시, 의회, 통도사 등의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조율과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승인과 행정자치부의 공고에 의해 2010년 울산역에 ‘(통도사)’를 부기하도록 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안아산역’, ‘김천구미역’과 같이 인접한 두 지역명으로 ‘울산·양산역’으로, ‘울산역·통도사’로 병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2009년 5월 역사명칭의 병기를 할 수 없도록 코레일이 내부 규정을 개정되어, 울산역에 ‘(통도사)’를 부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울산역과 통도사의 거리가 불과 10km에 불과하여,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양산과 울산 두 지역 간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통도사는 단순 사찰이 아닌 역사와 전통, 문화가 함께 숨 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아산(온양온천)역, 김천(구미)역처럼 철도역이 두 개 이상의 지역에 인접하여 소재할 경우 지역명을 함께 병기한 것과 달리, 울산역은 지역명 없이 ‘통도사’만 부기 하고 있어 울산역을 이용하거나 통도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통도사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울산역(통도사)는 경부선 KTX 정차역 중 서울역, 부산

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명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으며, 1일 이용객은 개통 당시인 2010년 8,500여 명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17,000여 명으로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요를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 ‘울산역(통도사)’ 개통 당시 259,000여명이던 양산 인구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354,000여명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며, 2018년 6월 30일, 통도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도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늘어나고 혼란 또한 더욱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산의 자랑인 통도사가 10년 이상 모호한 역명 부기로 인해 울산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양산 시민들은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역명부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영축총림 통도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임과 동시에 양산이 함께 가꾸고 지켜온 소중한 양산의 명소임을 공고히 하여 양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고속철도 ‘울산역(통도사)’의 역명부기를 (통도사)에서 (양산 통도사)로 변경하여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소재지가 양산임을 공고히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함

니다.

둘째. '광역철도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에 맞게 역사 외 부간판에도 (양산 통도사)부기명을 함께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